

왜곡된 女性像, 문제의식이 없다

향락소비문화 부추기는 여성지

박혜란

상명여대 강사 · 여성학

'외화내빈'의 값싼 흥미물 일색

잡지의 역할도 사회발전에 따라 변하는만큼, 80년대말의 대중여성잡지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초기 여성잡지들이 지녔던 계몽적 성격을 고수해 달라고 주문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최근의 여성잡지는 아무리 시대상황을 감안한다 쳐도 지나치게 오락성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70년대 이후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딛고 날로 화려해가는 걸모습과는 달리, 내용은 오히려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매스 미디어의 주요 기능인 교양 및 교육 · 오락 · 정보제공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값싼 오락물들로 가득 차 있다. 건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여성들을 완벽한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묶어두기에 급급하다. 말하자면 누구를 위한 여성지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 와 있다.

여성잡지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칫 단조롭기 그지없을 서점의 진열대를 그 화려한 표지로 꾸며주는 꽃의 역할일 뿐이라는 혹평이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얻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 발간되는 모든 여성잡지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반갑게도 몇몇 여성잡지는 진정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여성잡지의 대부분이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여성잡지들이 지니고 있는 문

제점들을 지적하자면, 거칠은대로 다음 몇가지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여성잡지가 女性像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 의식 ·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비하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맹목적인 소비자로서의 여성, 인내와 사랑만이 세계의 전부인 행복한 주부로서의 여성, 그리고 언제나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만을 부각시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매우 의도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의식각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제외한 모든 기사-화보에서 만화에 이르기까지-가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전통적 역할에 만족하는 여성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을 신다 보니, 자료나 소재가 제한된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의식주와 육아 · 가족 · 성 · 결혼 · 사랑 · 수기 · 소설 등이 진부한 내용으로 1년 단위로 반복된다. 5월이면 어김없이 혼수감 준비나 첫날밤의 성에 관한 기사가 어느 잡지나 비슷하게 실린다.

고정관념 벗어나 새 역할제시를

셋째, 여성이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 취재나 기획취재에, 탁월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간 신문기사를 길게 이어붙이거나, 또는 오락주간지식의 시각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문제, 인신매매, 여성전용 술집 같은 문제가 여성잡지에서 가장 흥미분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일부 여성의 탈선행위를 지나치



게 일반화시킴으로써, 많은 여성들에게 행동의 폭을 좁히는 경도장 구실을 한다. 그보다는 향락문화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여성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관심의 환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넷째, 특히 최근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정치인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선정주의적인 폭로 기사가 지나치게 많다. 월간종합지들도 '내막'이나 '비화'니 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상은 비슷하데, 대부분은 충격적이며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아리송한 소문들을 방증이 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더라는 식으로 나열한데 불과하다. 이는 역사의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에의 접근을 더 흐리게 한다. 사실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을 거론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끌려는 의도가 쉽사리 드러난다. 연예인이 정치인으로 바뀌었을 뿐 상품화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직접 관련없는 부인에 대한 기사들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성에 관한 기사인데, 겉으로는 원

만한 성생활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려는 저급한 묘사가 전무일 때가 많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서 저절로 정해될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잡지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겨냥하는 대상층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지금같은 백화점식 나열은 곤란하다. 여성에게 불필요한 필요를 창출시키지 말고, 주체적인 소비자로서의 의식을 각성시켜야 한다.

시간을 두고 기획, 심층취재하는 기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제도의 개선 같은 주제를 잡아 연중기획으로 다루고, 결국 여성의 힘을 운동으로까지 모을 수 있게 여성잡지가 도와야 한다.

광고의 범람에 대해선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기타 신선한 소재의 발굴, 다양한 필자개발, 독자의 참여유도 등을 통하여 여성잡지가 여성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동반자로 되어야 한다.

月刊 自動化技術

- Factory Automation (설비, 설계, 장치, 부품, 기계, 기기, 제어, 계측... 및 관련기기)
- Industrial Automation 관련 정보
- Control Engineering, Process Control, System Engineering 및 관련 정보
- Computer Aided Engineering & Automation

株式会社 尖端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79번지(첨단빌딩)
TEL: 846-4151 ~ 2, 844-3358 ~ 9, 1451, 4677
FAX: 844-8177

月刊 電氣技術

- 전력, 전기산업의 실체와 미래
- 최신 전력공학 및 전기공학 기술 및 정보
- 전기설비, 공사 관련 실무
- 기계산업 및 자동화산업의 전기기술
- 에너지 집중제어 및 절전, 절감 정보

株式会社 尖端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79번지(첨단빌딩)
TEL: 846-4151 ~ 2, 844-3358 ~ 9, 1451, 4677
FAX: 844-8177

月刊 MACHINE DESIGN

- 금형, 치공구 등 설계 및 가공
- 각종 전용기, 가공기의 설계 및 가공기술
- NC, CNC/Machine의 도해 및 응용 운전분야
- 산업기계 및 자동화기계의 기초설계
- 유압, 공압의 응용설계 및 특성

株式会社 尖端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79번지(첨단빌딩)
TEL: 846-4151 ~ 2, 844-3358 ~ 9, 1451, 4677
FAX: 844-8177

月刊 電子技術

- 반도체, 재료 및 부품분야의 실무 및 응용기술
- 회로 및 System 분야의 전반적인 응용기술
- 전자산업에의 Software 및 Hardware 응용 및 실무
- 계측 및 Control 분야의 첨단기술
- 통신 및 전자교환분야의 실무 및 기술

株式会社 尖端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79번지(첨단빌딩)
TEL: 846-4151 ~ 2, 844-3358 ~ 9, 1451, 4677
FAX: 844-8177